

‘관광도시’ 고흥군, 상반기 관광객 500만 돌파

전년비 6% 증가…특화 상품·차별화 관광 자원 효과
팔영대교 56만·소록도 21만·녹동항 21만 등 ‘복직’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이 올해 상반기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등 남해안 관광 중심지로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고흥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과 맞춤형 특화 관광상품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로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살펴보면 녹동거공권이 가장 높았고, 팔영산권과 북부권이 뒤를 이었다. 주요 장소별로는 팔영대교 56만명, 소록도 21만명, 녹동항 21만명이 방문하며, 주요 관광 거점 간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흐름을 보였다.

고흥 관광의 급성장은 특화 마케팅 전략이 입증된 덕분이다. 특히 철도가 없으나 역발상으로 ‘우주과학열차’, ‘우주철도999’상품을 기획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고흥만의 강점을 살려 ‘반값여행’, ‘단체관광 인센티브’, ‘생태관광’, ‘친환경 스포츠 여행상품’ 등 다채로운 특색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SNS와 중앙언론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이 더해져 관광객 유입을 대폭 끌어올렸다.

군은 이러한 모멘텀을 지속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철도 연계 교통 지원 사

업’, ‘섬 관광’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고흥 관광미래전략포럼’(9~10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특가 상품’, 하반기 ‘반값여행’, ‘고흥유자축제’(11월 12~15일)를 연계해 관광객 유치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을 준비중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성과를 발판삼아 2030년 12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자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우주·해양·생태 등 고흥만의 독보적인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대폭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 팔영대교

여수,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민·관 힘 모은다

민간유치위와 합동간담회
분야별 추진 전략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시는 최근 여수보건소 회의실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민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시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관계자를 비롯해 COP33 남해안 남중권 민간유치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COP33 유치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함께하는 범시민 유치 분위기 조성과 홍보 활동 활성화, 대외협력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특히 민간유치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 공감대 확산과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례시와



광주특례시 여수시는 최근 여수보건소 회의실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민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경남도, 관계기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해안 남중권의 공동 유치 역할을 높이고, COP33 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COP33 유치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며 “남해안 남중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환경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OP33 남해안 남중권 민간유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했으며, 여수선

연실천위원회와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탄소중립실천연대 등 시민사회 인사 40여명으로 구성돼 COP33 유치를 위한 홍보와 시민 참여 확산,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송영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 청년 창업기업 ‘홀로서기’ 지원

9200만원 투입…4곳에 환경개선·교육·컨설팅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보성군이 창업 초기 청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보성 청년창업 후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이후 자금 부족과 경영 경험 미흡, 판로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9200만원을 투입해 보성에서 창업한 지 1~3년 청년기업 4개소를 선정해 사업장 환경개선과 창업 교육,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장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업교육과 분야별 1대 1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경영 역량과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창업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61-850-5988)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지역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9월부터 창업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이수한 뒤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사업장 주소를 보성군에 유지해야 한다. 의무 기간 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또는 지원 시설과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김철우 군수는 “청년들이 창업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바로 사업 안정화 단계다”며 “청년 창업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머물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보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장흥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한우요리 메뉴개발 교육 수료식과 품평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장흥군청

장흥, 한우 소비촉진 메뉴 개발 교육

지역 농축산물 연계 콘텐츠 발굴…품평회 등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장흥군이 지역 특산물인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메뉴 개발에 나섰다.

6월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정남진장흥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한우요리 메뉴개발 교육 수료식과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흥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발굴하고 외식·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운영된 교육의 마무리 자리로,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개발한

한우 요리를 선보이며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평회에서는 한우 라이스케이퍼육전, 한우타닥기, 쇠고기 우영꼬치 등 다양한 메뉴가 출품됐으며, 맛과 상품성, 대중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품평회를 통해 장흥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축산물과 연계한 특색 있는 먹거리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곡성, 군민 생활 속 법률 고민 해결

21일 옥과면 28일 고달면 ‘마을 변호사’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 ‘찾아가는 마을변호사’가 오는 21일 옥과면, 28일 고달면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는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변호사가 직접 읍면을 방문,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두 차례 상담을 운영한다.

21일에는 옥과면사무소 1층 다용도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박연재 변호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상담에서는 일반 민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상담과 함께 6·25전쟁 및 여순사건 관련 상담도 함께 추진해 주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28일에는 고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신원 변호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내일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지를 우선 상담한다. 사전 예약 신청은 읍면 사무소 총무팀(옥과면 061-360-7814, 고달면 061-360-7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순한 법률 상담은 예약 없이 현장에서도 가능해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곡성군은 5명의 마을변호사와 함께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료와 분쟁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나 거리 등의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들이 가까운 읍·면에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고민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광양, 시민과 함께 민선 9기 공약 이행 점검

13일까지 평가단 33명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양시가 민선 9기 공약사항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행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3명으로 미래성장분과, 행복복지분과, 도시혁신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다. 공약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지역 또는 공약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pw0825@korea.kr) 또는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 9기 공약의 추진 과정과 이행 상황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공약 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와 심의에 참여한다. 시민 참여를 통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평가단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분과별 공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위촉된 평가단은 민선 9기 종료 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기획예산실(061-797-2384)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현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시민과 함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